

## ■ 영상 택배 시즌 2 - 경교장을 가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입니다.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연구원 조성민 간사가 추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KTV 국민방송에서 제작한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여행,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 경교장을 가다"입니다.



경교장은 1949년 1949년 김구 선생 서거 이후 원래 주인인 최창학에게 반환되었다가 타이완 대사관저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 때는 미국 특수부대가 주둔하는 등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967년 삼성재단에서 매입하여 강북삼성병원 본관으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서울시에서 소유는 그대로 두고 전체 공간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1년 4월 6일 서울 유형문화재 제 129호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 6월 13일에 사적 제 465호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최태성 역사 강사와 노혜지 리포터가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경교장을 찾았습니다. 경교장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29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의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된 역사적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맞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호수지역의 아름다운 경치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호수지역 초엽에 있는 정서적인 풍경

영국 북부에 위치한 호수지역은 말 그대로 전 지역이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어쩌다 숲, 어쩌다 만나는 호수가 아니다. 호수지역 관문인 윈더미어부터 펼쳐지는 경치는 온통 숲이고 호수는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호수가 이어진다. 그 경치는 가히 감성적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영국 런던 등 대도시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칠 때 찾는 곳이 이곳 호수지역이라고 한다. 힐링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자세히 보니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호수와 숲에서는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자연 치유의 공기를 발산하고 있다.

호수지역을 찾게 된 것은 자연을 경건하게 생각한다는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영국 계관 시인)의 한편의 시에 이끌려 이곳(Lake District)에 왔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호텔 예약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책 없이 무작정 항공권과 영국 철도 패스만 구입하여 떠나 왔었다.

처음에는 한번정도 다녀가리라 생각했었는데, 이 곳 자연이 자꾸 나를 불렀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여섯 번, 그런데 갈 때마다 호수지역 경치에 넋을 놓곤 하였다.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유럽을 간다면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냐 고 ~ 당연히 영국이다. 그 정도로 영국 특히 호수지역은 사람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다.

워즈워드의 「3월에 쓴 시」 한 구절을 보자.

“시냇물이 흐르고

작은 새들 지저귀며

호수는 반짝이고

푸른 들이 햇볕 속에

잠들어 있다.

-중략-

가축들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풀을 뜯는다.

마치 마흔 마리가 하나인 양 ~”

## Lake District

영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호수지역 (Lake District)은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가려면 런던 유스턴 (Euston) 역에서 기차를 이용한다. 옥스홀름에서 윈더미어역까지 가면 거기가 호수지역 관문인데, 기차는 거기까지다. 오래 전에 이지역을 관통하는 철길을 시도했지만 워즈워드, 존 러스킨 등 자연 애호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도 신설 계획을 철회하였다. 윈더미어 (Windermere)에서 배로 Ambleside, Grasmere 가는 동안 나무에 둘러싸인 호수들의 경치에 빠져든다. 이런 풍광이 또 무엇을 하는 감탄이 머리로 눈으로 그리고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워즈워드가 호수지역 자연을 지키려고 1인 시위를 벌였는지, 왜 비아트릭스 포터가 런던의 호화 저택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하였는지, 런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된다. 연간 수백만 명이 이곳에서 휴양하는 곳으로 택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호수지역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친 이들이 있었고 이 자연 보존하기 위해 National Trust 라는 단체를 만들고 실행에 옮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 10. 8. 김 천식 후

### 필자의 손 글씨

워즈워드에 관하여는 비아트릭스 포터의 동화 세계를 끝낸 후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영국을 처음 찾은 계기가 워즈워드의 시 때문이었기에 우선 간략하게 말하고자 한다. 워즈워드의 시는 호수지역의 자연에서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는 자연스럽고 소박하다. 머리를 굴려야 이해되는 그런 난해함이 없다. 워즈워드는 귀족이지만 호수지역 곳곳을 거의 걸어서 다녔다. 그리 넓은 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그는 수 십 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자연을 탐나는 데로 산책하듯이 다녔다.

그는 걸으면서 자연에 동화 되었고 자연스레 시상(詩想)이 떠올랐다. 워즈워드에게 자연은 삶의 기쁨이고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필자 스케치

##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열한 번째 이야기

### 신라의 보물들 - 하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석굴암 전경

그리고 당도한 석굴암(石窟庵). 신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양, 석굴암의 부처님이 지닌 표정은 편안하고 너그럽기 한량없었다. 대자대비(大慈大悲)한 가피는 넓은 어깨와 살진 품새에 넘쳐났고, 흘러내린 옷 주름에서 그침 없었다. 역시 신라의 자랑 아닌가?



석굴암 본존불 전경(사진: 석굴암 누리집)

임자 잃은 장항리의 폐탑을 지나면, 마주하는 냇물이 대종천(大鐘川)이다. 이곳에는 신라의 꿈이 아직도 전설 속에 묻혀있다. 고려 시대였던 1238년(고종 25)의 일이다. 몽고군의 침략으로 황룡사의 구층탑이 불에 탔다. 당시 황룡사에는 에밀레종 곧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보다 네 배가 넘는 100톤 무게의 큰 종이었다. 몽고군은 이 종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려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런데 종을 실은 배가 동해로 나가마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종과 배가 모두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 후로 풍랑이 심하게 이는 날이면, 큰 종을 울리는 소리가 일대에 들려왔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주변 마을의 해녀들이 물속에서 대종을 보았다고 하지만, 대종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다.





감은사지 석탑



대왕암 전경



### 골굴암 전경

전설은 다시 감은사지로, 대왕암으로 연이었다. 감은사 법당 아래 조성된 수로를 확인한 후, 검푸른 동해의 물결 속에 하얗게 얽드린 대왕암을 마주하자니,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고자 한 문무왕(文武王)의 결연한 꿈이 한 마리의 용으로 꿈틀거렸다.

도중에 들른 골굴사(骨窟寺) 역시 지나칠 때마다 빠뜨리지 못하는 곳이다. 독특한 지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암이라고 주장하는 이곳은 눈부터 즐거운 탓이다. 오늘날에는 선무도(禪武道)의 수행 도량이라고 이름을 내세우지만, 원효 대사가 열반에 들었다고 전해지는 '혈사(穴寺)'로 비정된다는 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의 머리를 청송으로 돌렸다. 주왕산과 주산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주왕산까지 2시간이 걸렸다.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열두 번째 이야기 “청송의 주왕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